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대학

한 만 진

LG전자 이사대우



우리는 흔히 대학을 가리켜 학문의 전당 혹은 상아탑이라고 부른다. 그 곳에는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이들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있다. 또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대학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끊임없이 배출해온 인재양성의 장이라는 점이다. 우리 기업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대학에서 양성된 우수한 인재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 또한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력이 그 꿈을 펼치는 무대로서 대학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학과 기업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받으면서 함께 발전해온 동반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앞두고 국가 전체가 초일류로 도약하고자 하는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협력관계가 요구되고 있다. 마침 요즘의 기업들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사관계 개혁, 생산성 향상 등의 경영혁신은 물론 첨단 기술 개발과 세계화 전략 등을 추진하느라 바쁘다. 이제 기업의 활동 무대는 국내시장이 아니라 세계시장이며, 따라서 경쟁상대 역시 세계의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쟁의 무기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이다. 인재야말로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 것이다.

실제로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들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곧 기업 성공의 요건임을 인식하고, 인재개발 부문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인적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대학에서 채용하고, 이들을 재교육하여 필요한 '인재'로 육성해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외국어교육, 통신교육, 전산교육, 직능별 실무교육, 그리고 교양강좌 등 사내 교육뿐만 아니라 사외의 여러 교육기관에도 수시로 파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실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사실 상당한 아쉬움을 안고 있다. 재교육에 투입되는

노력이 시간적·비용적인 측면에서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갈 우수한 인적 자원을 조기에 확보하려면 대학의 교육이 기업의 교육과 상당 부분 맥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제는 대학의 교육과정(교육과정)이 기업의 요구(needs)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곧바로 현업에서 실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이론과 학문적 논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학과 기업 모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술인력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대학의 편제나 운영이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내 기술대학에도 학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교육의 폭을 넓히고 현장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셋째, 대학과 기업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산학협동의 연구활동이 더욱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산학협동의 연구활동은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기금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이 조화롭게 성취될 수 있는 길이다. 단순히 명목만의 연구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

넷째, 단순한 기술인력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대학은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창의적인 인재,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도전의식,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인재야말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인 것이다.

다섯째, 세계화와 정보화를 앞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외정보와 멀티미디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은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과 미래의 정보화사회에서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업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당면과제 앞에서 기업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업의 인적 자원은 결국 대학을 통해 수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학은 학문의 전당 혹은 상아탑으로서만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산실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한만진/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와 송실대 노사관계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LG전자 이사대우로 재직중이며, 노경혁신팀장(수석부장)을 역임했다. 송실대에서 노사관계 논문상, 산업포장 대통령 훈장, 한국협상대상 특별상 등을 받았다.